

군산 경제 위기 극복 지역사회 힘 모은다

내일 군산대서 '한국GM 철수, 위기대응 워크숍' 개최 지자체 차원 위기 극복 정책 발굴·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한국GM 군산공장의 5월 폐쇄 방침에 따른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학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군산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산학협력관에서 '한국GM 철수, 위기대응 정책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자체와 대학, 연구소, 산업체, 전문가들이 에너지와 자동차, 창업, 정보통신, 조선 등 산업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유기하 전주MBC 선임기자의 'GM사태와 지역 리더십' 주제 발표에 이어 노재규 군산대 산학협력부단장은 '군산조선소 운영 활성화 방안 제안'에 대해 발표한다. 신효균 전 JTV대표이사의 한국GM 군산공장의 5월 폐쇄에 대한 장기적 대안 모색에 대한 주제 발표도 이뤄진다.

또 최연성 군산대 새만금ICT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역산업 혁신방안', 김현철 군산대 창업지원단장의 '군산경제 장담기 정책제안', 김영철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의 '에너지 신산업 공공시민·노동자 펀드 조성' 등의 발표도 마련했다.

이어 'GM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발굴'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김영철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대학 주도로 지자체 등과 위기대응 정책을 발굴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군산공장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 정부에 보다 강력

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군산경제는 이미 파탄기경인 데, 이번 GM 사태로 전북 전체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GM 본사와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생산라인 정상가동



문동신 군산시장(왼쪽 세번째) 등이 지난 9일 인천시 부평공장을 방문해 한국GM 측에 '군산공장 정상화 촉구 전북도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군산시 제공>

을 위한 신차물량 배정,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으로 전환, 회계투명성 검증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역 사태를 방지한 책임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생산라인 정상가동

을 위한 신차물량 배정,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으로 전환, 회계투명성 검증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역 사태를 방지한 책임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생산라인 정상가동

익산시, 50년 숙원 소라공원 개발

체육시설 등 2021년 완공 예정

익산시가 장기미집행시설인 '소라공원' 개발에 나선다.

익산시는 50년된 장기미집행시설인 소라공원 내 20만8428㎡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개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6만5000㎡의 소라공원 전체 면적 중 20만8428㎡에 대해 개발사업을 발의 계획이다.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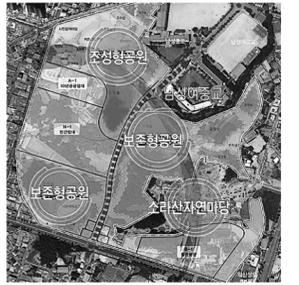
시는 이를 위해 앞으로 2주간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5월 경 사업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오는 202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추진되며 공원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다.

공원시설인 14만7281㎡의 부지에는 체육시설과 광장, 휴식공간, 산책로 등이 들어서게 된다. 나머지 30% 가량인 6만1147㎡의 면적에는 LH가 공동주택 1440 가구를 건설한다.

공동주택은 청년임대 220가구를 비롯한 민간임대 720가구, 공공임대 300가구, 일반분양 420가구가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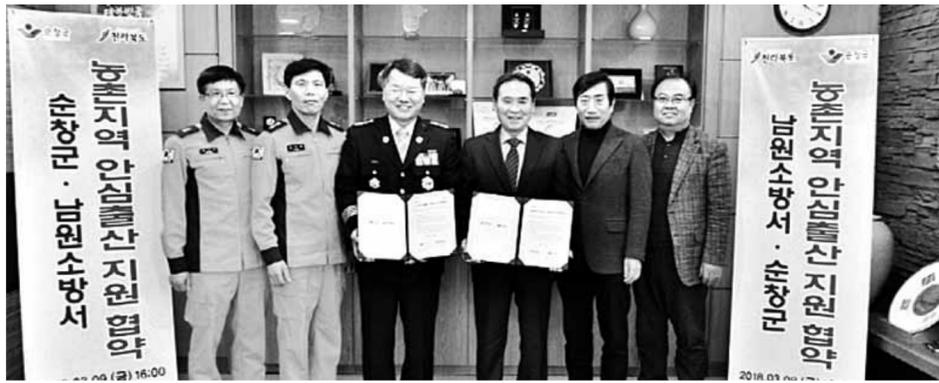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며 지난 2월 제안을 수용했다.

시는 재정 부담 없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쾌적한 도시환경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찬을 익산 시장은 "공원 개발로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에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 소라근린공원은 지난 1967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12일 순창군과 남원소방서 관계자들이 '농촌지역 안심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긴급 출산 땀 '119 안심콜' 바로 달려갑니다"

순창군-남원소방서 업무협약

순창군과 남원소방서가 임신부 정보 공유를 통해 농촌지역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돕는다.

순창군은 남원소방서와 '농촌지역 안심출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19 안심콜 시스템 운영과 긴급 출산 시 119구급차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협약의 골자다.

군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임신부의 정보를 남원소방서와 공유하며 긴급 출산에 대비한다. 이날부터 정보 제공에 대한 관내 임신부의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142명의 임신부를 관리하고 있다.

남원소방서는 119안심콜 서비스에 임신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임신부 출산정보를 접수 시 긴급 출동에 산모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유된 정보를 통해 임신 주수나 산모의 가족관계 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출산 시설이 없는 순창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119 안심콜 센터가 꼭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정영근기자 jy9@

고창군, 폐기물 소각로 설치 쓰레기 매립 제로화 나선다

2020년까지 129억원 투입

고창군은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29억원을 투입한다.

이 소각로는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일원에 들어서며 1일 25t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군은 생활폐기물매립시설 매립용량이 95%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친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15년 환경부 사전협의를 타당성 조사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지난해 2월에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오는 2020년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연환경보전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 용량확보를 위한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도 2020년부터 운영계획으로 매립시설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건강한 노후생활 도와드려요"



정읍시보건소, 건강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은초록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르신 건강교실은 운동과 영양, 비만, 금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 웃음치료와 노래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이번 교육은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문상용 정읍시보건소장은 "이번 건강교실은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호응이 좋다"며 "앞으로 도 어르신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roma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혈액순환 안되고 **갑갑함** 짬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속옷의명가

KCPRA 2016, 2017, 2018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시

편안한 착용감
탄성 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발단면역각형 사용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원적외선 특수물질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